

# 광주 수돗물 없는 마을 11곳...한파에 지하수 얼어 불편

### 미세먼지·가뭄 고갈 등 피해도...광주시 "상수도 보급 급수 취약 개선"

광주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마을이 아직도 11곳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주민들은 자체 물 저장시설을 만들어 지하수나 하천물을 끌어다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마을에선 최근 강추위로 관련 시설이 얼어붙으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관정, 물탱크 등 자체 저장 시설을 이용 중인 마을은 11곳으로 파악됐다. 서구 벽진동 상촌마을, 북구 금곡동 금정마을, 광산구 대신동 가산마을 등 11개 마을 주민 526명은 길게는 1979년부터 지하수를 파거나 마을 우물, 계곡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해왔다. 주민들이 직접 관정, 물탱크 등 시설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사용한 물이 불철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고, 가뭄으로 하천수나 지하수가 고갈되는 경우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 한파에 시설이 얼어붙으면 주민들이 한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상촌마을에서는 공동 생활용수 저장 시설이 한파에 얼어붙어 35세대가 소방 등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마을은 광주 도심 등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지대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상수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째 상수도 연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경제성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선 무효인 지하수 사용을 선호하는 일부 주민의 상수도 설치 반대 의견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사전 조율 등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상수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금곡동 금정마을에는 지난해 급배수관 등을 설치하고 12월부터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 20명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급수 취약 지역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 등 전남 지역사회는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초대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 점 등을 근거로 최초 통제영은 여수라고 주장한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했던 전남관의 보수 해체·복원 공사가 한창이다. <여수시 제공>

## 전남도 "무안공항 8월 재개항 목표"

### 광주시에 상생협력 요청...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난제 많아"

전남도가 광주시에 무안국제공항의 8월 재개항을 목표로 상생협력을 하자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 임시 부정기 국제선 취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 요건, 공항 안전, 세관·출입국관리·검역시스템 구축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제약 사항으로 세계양궁선수권 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국토부의 공항 특별안전점검 결과 광주공항 또한 안전

시설 개선 대상에 포함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국제선 운항 기본 요건인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관세법상 개항장 지정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관제라인 구축도 필수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최종 2년까지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다. 여기에 4~7월은 여객 비수기로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추이 분석 결과 이용률이 저조해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유치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전남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측은 "무안국제공항 항행안전 시설 조기 확충을 통해 8월 재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시기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진행되지 않도록 광주시의 대응적인 상생 협력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지역 여행사 피해 130억원 추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지역 여행사의 항공기 수수료·예약상품 취소 등에 의한 피해액이 약 13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남도가 이들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금 상환 1년 유예를 건의해 수용됐다.

전남지역 특별융자금 대상은 총 97개 여행업체

다. 전남에 소재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5년 중 상환이 도래하는 여행업체는 해당 거래은행에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16일까지 접수하며, 해당 여행업체는 특별융자금 지원으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수나 통영이나...최초 삼도수군통제영 놓고 역사 논쟁

### "한산도는 전진기지일 뿐" 주장

### "역사왜곡" 통영시의회 결의안

한산도나 여수나.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을 놓고 영·호남 주요 도시 간 논쟁이 비화하고 있다. 여수시와 통영시가 각각 특별강연을 열고 역사적 사실을 들어 '원조'임을 주장하는가 하면, 서명운동과 결의안 채택으로 응수하며 역사 논쟁이 가열하는 모양새다.

선공을 날린 것은 여수시다.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빼앗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역사바로잡기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한 데 이어 (사)여수중고회, (사)여수여해재단,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등 시민단체가 가세해 학술대회를 열고 범시민 서명운동, 표지석 건립, 관계기관 청원 등 여론전

을 펴고 있다.

이들은 초대 삼도수군통제사는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며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있던 전라좌수영 본영인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 교지를 받은 한산도는 왕명에 의한 '영'이나 '진'이 아닌 전진기지 정도로, 통제영으로 볼 수 없다'며 '통제사 임명 당시 국가 행정 통제영은 전라 좌수사가 통제사를 겸했기에 전라좌수영이 된다'는 입장이다.

여수시는 이를 바탕으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인 전라좌수영 동헌 역사문화공원과 선소테마정원 조성 등을 완성해,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호국도시의 위상을 높여갈 방침이다.

통영시는 "역사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는 난중일기와 이충무공전서 등 현존하는 임진왜란 사료와 고증 자료 대부분에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돼 있고, 국가 유산청 역시 통영을 최초의 통제영이라고 인정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31일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은 통영 한산도였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1592-1598) 동안 군중에서 쓴 '난중일기'를 비롯해 '이충무공전서', '두룡포기사비', '통제영총명사기' 등 현존하는 임진왜란 사료와 근현대 고증자료에 대부분은 '한산도는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오는 14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주시·전남도 '딥시크' 차단... "정보유출 예방"

### 자치구·공사·공단 등에도 통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6일부터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를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정보와 자료 유출 등의 위험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에 따른 인터넷 사용제한 근거 규정에 의거해 '딥시크' 접속이 가능한 IP주소를 유해사이트 목록에 추가해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지피티(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초단체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도 딥시크(Deepseek) 차단 사실을 알리고, 자체 내부검토를 통해 차단 동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도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나 이미지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내부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질문하거나 올려주기(업로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해미 광주시 데이터정보담당관은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법률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해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주요 정보와 디지털 자산, 자료를 지키기 위한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중 앙

###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권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분할합병공고

2025년 2월 7일 각자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유니전력 (이하 "갑")의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정한(이하 "을")과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위계시도 등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갑" 주식회사 유니전력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곡산단중앙로 52 (오선동)  
대표이사 박정류  
"을" 주식회사 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유곡로 112(역동동)  
대표이사 이한출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황규성(381225-1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월동로 88, 101동 1201호 (각화동, 글로리아파트)  
피상속인 망 황규성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단4830호로 신청하여 2025년 2월 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2월 10일  
• 상속인: 황혜경(670612-2XXXXXX)  
광주 북구 각화대로 33, 11동 1206호 (각화동, 금호타운)  
• 신고기간: 2025. 2. 10. ~ 2025. 4. 22.  
• 채권신고처: 상속인 황혜경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